

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과 『모순』을 중심으로*

조 의 연
(동국대)

1. 머리말

이 논문은 화자가 지시하는 사건 또는 대상체에 대한 화자/청자의 공간적 또는 심리적 근접성(proximity)을 부호화한 영어와 한국어 지시관형사의 변환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지시관형사로 사용된 영어의 화자근칭

* 본 연구는 2006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번호 A01056)임. 주과제명은 [병렬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이지만 본 논문은 문학번역에 나타난 지시관형사 변환(shifts)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일부는 2009년 4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박지혜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내용에서부터 논문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1) 번역학에서 ‘shifts’ 현상은 ‘전환’ 또는 ‘변환’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으나 본 연구에

‘this/these’와 청자근칭 ‘that/those’의 경우를 보면, 화자를 중심으로 공간적 혹은 심리적 근접거리의 대상체는 ‘this’를 그리고 화자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대상을 지시할 경우 ‘that’을 사용한다 (Biber et al. 1999:273).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 준다: (1)-(2)는 공간적 근접성의 경우이며 (3)-(4)는 심리적 근접성의 예이다.

- (1) This cake is lovely. (화자가 먹고 있는 케이크를 지시함)
- (2) Finish that cake if you want it. (청자가 먹고 있는 케이크를 지시함)
- (3) You know I actually like this chap.
- (4) I don't want that bastard.

한국어의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이’와 청자근칭 ‘그’도 영어와 유사한 화용의미의 특성을 갖고 있다. (5)-(6)은 현장 지시 기능의 예로 화자근칭 ‘이’와 청자근칭 ‘그’가 공간직시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 (5) 이 물건을 밖으로 가져가십시오.
- (6) 그 책을 이리 가져 오시오.

아래의 (7)-(8)은 이른바 ‘상념지시’ 기능의 예이다. 서정수 (1966: 9장)에 따르면, (7)은 화자가 청자의 인식에도 공유되어 있다고 믿는 “머릿속의 대상”을 지시할 때 ‘그’가 쓰임을 보여주고 (8)은 화자 자신의 머릿속의 대상을 지시할 때는 ‘이’가 쓰임을 보여준다.

- (7) 우리 동네에 그 소문이 짝 퍼졌어요.
- (8) 나의 이 슬픈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화자/청자의 근접성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 지시관형사 ‘this’와 ‘이’ 그리고 ‘that’과 ‘그’의 형식적 일치(formal correspondence)에도 불구하고 실제 번역 결과는 비대칭적 변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예를 들어, 영어 지시관형

서는 ‘변환’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2) 영어와 달리 한국어 지시관형사는 ‘이’와 ‘그’ 외에 ‘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 ‘this’의 경우, (9)의 예와 같이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지시관형사 ‘이’로 유지되거나, (10)에서와 같이 지시관형사를 수반하지 않은 영 형태소(zero morpheme)의 원형명사구 ‘∅ N’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9) ST: Then this girl gets killed, because she's always ...

TT: 그러다가 이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10) ST: ... these little kids playing some game in this big field of rye and all.

TT: ...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데서 조그만 꼬마들이 어떤 놀이를...

한편, 한국어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이’의 경우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는 (11)과 같이 형식적 일치에 의한 영어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this’로 유지되기도 한다.

(11) ST: 이 와인, 당신을 위해서 아까 예약할 때 특별히 주문해 둔 거야.

TT: I had this wine set aside especially for you when I made the reservation.

그러나 아래의 (12)-(13)에서와 같이 한국어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이’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정관사 ‘the’ 명사구로 또는 인칭대명사로 변환되기도 함을 보여준다.

(12) ST: 이모부는 전화 한 통화로 이 일을 해결했다.

TT: He solved the problem with one phone call.

(13) ST: 심연으로 가라앉은 내 마음이 나에게 일렀다. 이 남자를 놀리지 말라고.

TT: My thoughts, settling into a deep abyss, urged me not to tease him.

말뭉치에 나타난 ‘저’의 쓰임은 출현 빈도수가 33회로 ‘그’의 빈도수에 비해 10%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표현이 영어에 없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편의상 영어 지시관형사 복수형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직시어 현상은 화용론의 기본적 현상으로 지시 대상체에 대한 화자의 (청자와의 관계에서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공간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번역학에서도 번역가의 관점 전환 및 개입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메이슨과 세르반(Mason and Şerban 2003) 그리고 보소(Bosseaux 2007)의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4절에서 소개되겠지만, 본 연구대상의 출발텍스트에서 출현한 지시관형사들이 도착텍스트에서 형식적 일치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22%에서 25%에 이르는 정도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두 형식적 변환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 지시관형사의 화자근칭과 청자근칭에 관한 형식적 일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메이슨과 세르반 그리고 보소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영한 그리고 한영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이러한 지시관형사의 변환 현상은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명사 체계의 차이에 의한 언어체계의 차이와 텍스트 응집성을 포함한 번역가의 개입, 즉 문체적 차이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³⁾ 전자가 문법적 체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면 후자는 번역 전략에 의한 번역가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이 논문은 영한과 한영 번역텍스트에 존재하는 지시관형사 불일치 현상은 번역가의 선택 그리고 양 언어의 지시 명사구 체계의 차이 두 요소에서 비롯됨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가 위에서 언급된 직시어 연구와 다른 점은 지시명사구의 선택과 관련하여 담화 인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어떤 유형의 지시 명사구가 사용되는가는 텍스트 내에서의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지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델, 헤드베르그 그리고 자카르스키(Gundel, Hedberg, and Zacharski 1993, 2001)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지시관형사 명사구의 도착텍스트 변환 현상을 건델 등의 지시명사구 (정보)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 (The Givenness Hierarchy)’을 활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화자근칭에서 청자근칭으로 또는 청자근칭에서 화자근칭으로 변환된 경우는 번역가의 선택에 의한 관찰시점의 전환이라는 번역가의 담론개입(translator's discursive presence)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다 (Baker 2000).

3) 번역의 변환 현상과 관련하여 블룸쿨카(Blum-Kulka 1986)에서 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지시관형사의 변환은 크게 명사구 체계의 차이와 문체적 요인에 의해 비롯됨을 볼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은 이 논문이 취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병렬말뭉치를 소개하고 이의 활용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영한 번역의 텍스트로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Jerome David 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를 그리고 한영 번역의 텍스트로는 양귀자의 『모순』을 대상으로 하였다. 번역과정에서 언어체계의 차이에 의한 요소와 번역가의 문체적 전략에 의한 번역가 개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3절에서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 지시명사구 체계의 주된 차이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논할 것이다. 4절은 변환의 구체적 예를 분석하였고 화자 근칭에서 청자근칭으로의 변환 등 번역가 개입의 텍스트 효과를 인지 화용적인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5절은 이 논문의 맺음말이다.

2. 병렬 말뭉치와 분석 자료

병렬말뭉치는 출발텍스트와 해당 도착텍스트가 병렬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도착텍스트와 출발텍스트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병렬말뭉치는 대조언어학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비교말뭉치(comparable corpus)와 달리 번역 결과물을 통한 번역텍스트 고유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Johansson 1998). 그러나 스튜어트(Stewart 2000)에 따르면, 병렬말뭉치는 번역 과정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번역 과정에 대한 분석은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전자화된 병렬말뭉치의 용례색인(concordance lines)을 통하여 도착텍스트에 나타난 출발텍스트로 부터의 변환 현상이 쉽게 포착되며 이를 통해 번역 과정, 또는 번역 행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⁴⁾ 문제는 말뭉치를 활용하더라도 번역연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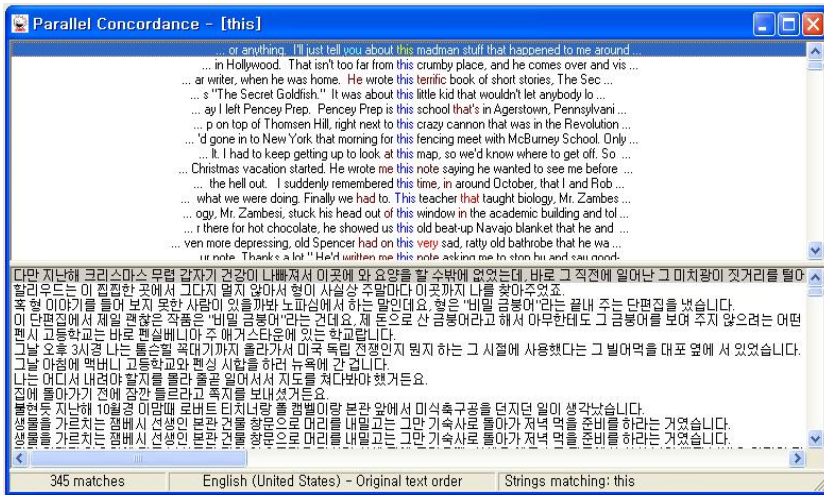
4) 병렬말뭉치를 활용한 대조 언어분석 그리고 번역학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올로한(Olohan 2004의 3장)을 참조하기 바람. 비교말뭉치 중심의 번역연구와 관련하여 케니(Kenny 2005)는 병렬말뭉치는 비교말뭉치 연구의 한계인 번역 결과물과 출발언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병렬말뭉치는 번역 텍스트의 특성과 출발텍스트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목적 또는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말뭉치의 유형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도착 텍스트에 나타난 번역가의 목소리(the translator's voice) 또는 번역가의 담화 흔적현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출발텍스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병렬말뭉치가 효과적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은 출발텍스트의 지시관형사 명사구가 도착텍스트에서 어떻게 실현, 변환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가 상호 대응되어 정렬되어 있는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분석되는 영어 출발텍스트는 1951년 재 출판된 샐린저의 미국 소설 *The Catcher in the Rye*이며 이의 한국어 번역 도착텍스트는 1994년 출판된 김옥동과 염경숙 공역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한국어 출발텍스트는 1998년 출판된 양귀자의 한국소설 『모순』이며 이의 영어 번역 도착텍스트는 2001년 출판된 스테판 엡스타인(Stephen Epstein)과 김미영 공역의 *Contradictions*이다. 먼저 각각의 텍스트를 전자 문서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캐닝 절차를 따랐으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로 전환된 것을 본문 대조하였다. 그리고 절 단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여 저장하였다.⁶⁾ 본 연구에서 구축된 병렬말뭉치가 탑재되어 운용되는 용례색인 추출 프로그램으로는 발로우(Michael Barlow)가 개발한 ParaConc이 사용되었다. ParaConc에서 추출되는 용례색인은 문장 대 문장으로 정렬, 구축된 병렬말뭉치이기 때문에 문맥 핵심어(Key Words in Context)가 발생하는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의 비교가 매우 용이하다. 아래의 예는 문맥 핵심어 'this'의 용례색인을 보여주는 창이다. 상위 창은 영어이며 하위 창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창이다.

5)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소설, *The Waves*와 *To the Lighthouse*의 불어 번역본 소설에 나타난 번역가의 목소리를 연구한 보소(2007)의 연구는 병렬 말뭉치의 구축을 통하여 이를 보여주고 있다.

6) *The Catcher in the Rye*와 이의 한국어 번역 말뭉치는 각각 73,610단어와 56,059단어로 구성되어있다. 『모순』과 이의 영역본 말뭉치는 각각 41,870단어와 60,597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병렬말뭉치는 어휘의 품사 태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this’에 의해 추출된 용례들은 지시관형사뿐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지시대명사 용례도 추출해낸다.

(14) ST: ... "They really will. This is about the fourth school I've ever gone to...

TT: ..“정말 그러실 겁니다. 이번 학교가 네 번째 학교이거든요.” ...

문맥 핵심어 ‘this’의 전체 출현은 345회로 위와 같은 지시대명사의 경우를 제외한 결과, 지시관형사로 쓰인 용례는 총 281회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관형사 ‘that’을 찾는 과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문맥 핵심어 ‘that’에 의해 추출된 용례들은 아래와 같이 지시대명사 ‘that’뿐만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 ‘that’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5) ST: ... they're quite touchy about anything like that, especially my father. ...

TT: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에는 극히 신경과민을 보이신답니다. 아버지께서는.....

(16) ST: ... I just tell you about this madman stuff that happened to me around

TT: ...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그 미치광이 짓거리를 털어놓으려는 겁니다.....

‘that’의 경우는 총 809회 출현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시대명사 및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제외한 지시관형사의 총 용례는 127회 발생하였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지시관형사 ‘that’의 용례색인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We went up and watched the bears, on [[that]] little hill, for a while...
 ...우리는 걸어 올라가서 작은 언덕에 있는 곰들을 잠시 지켜보았지만...
 ...I think I even miss [[that]] goddam Maurice...
 ...망할 놈의 모리스까지도 보고 싶어지는 게 아답니까...
 ...We'd gone in to New York [[that]] morning for this fencing meet...
 ...[[그날]] 아침에 맥버니 고등학교와 펜싱 시합을 하러 뉴욕에 간 겁니다...
 ...My mother can make a very big stink about [[that]] kind of stuff...
 ...[[그런]] 일이 문득 떠오르게 되면 언제라도 필요할 때 작별을 고향 수 있는 겁니다...

문맥 핵심어 ‘이’를 검색한 결과 143회 출현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시관형사의 용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지시관형사 ‘이’의 용례색인은 총 139회로 나타났다.7) 아래의 예들은 이와 관련된 용례색인을 보여준다.

7) 예를 들어 “아예 이 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렀다”에서 ‘이’는 동음이의어로 기수 ‘2’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이 외에 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이’도 있었다: “... 이 남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부장 것으로!” 이라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약소한 월급으로도 얼마든지 이 식탁을 책임질...

...still had plenty left over from my meager salary to pay for that dinner...

..." 이 와인, 당신을 위해서 아까 예약할 때 특별히 주문해 둔 거야...

..."I had this wine set aside especially for you when I made the reservation...

...그 유명한 4월 1일, 만우절, 밤 아홉 시 이십분에. 이 거짓말...

...At 9:20 p.m. on April 1, that famous day, the day of fools. This lie...

... 이 일련의 동작들은 정확하게 최민수를 표절하고 있다. 이젠 거의 자유자재다...

...This string of actions was certainly cribbed from Choe Min-su,...

한편, 문맥 핵심어 ‘그’를 검색한 결과 355회 출현하였으며 이 가운데 남성 인칭 대명사 ‘그’의 경우들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그 대신’의 경우도 생략하였다. 비록 한국어 문법 분석에서 ‘그’는 지시관형사로 기능을 하지만 ‘그 대신’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는 하나의 의미단위인 접속 부사 ‘instead’로 기능하기 때문이다.⁸⁾ 그 결과 지시관형사 ‘그’의 용례색인 총 340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3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한/한영 도착텍스트에 나타난 지시관형사의 변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한국어와 영어의 명사구 체계를 논의할 것이다.

3. 인지상태에 기반을 둔 지시명사구 체계

지시명사구의 용법은 인지정보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Ariel 1988, Gundel, Hedberg, and Zacharski 1993, 2001 등). 특히 건델, 헤드베르그, 그리

8) 실제로 ‘그 대신’은 출발 텍스트에서 4회 발생하였으나 영어 도착 텍스트에서 접속어 ‘but’ 또는 ‘instead’로 번역되거나 문맥에서 생략되기도 하여 한국어에서 ‘그 대신’의 ‘그’의 지시관형사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 자카르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지시표현의 쓰임은 그 지시 대상이 청자의 기억이나 주의 집중 상태에 어떤 인지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에 따르면, 영어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type identifiable)에서부터 ‘초점을 받고 있는 상태’(in focus)까지 여섯 단계의 인지적 위치에 따라 지시 명사구의 형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예를 들어, 부정 한정사 명사구 ‘a(n) N’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인지상태에서, 부정 지시 명사구 ‘indefinite this N’은 지시적인 인지상태에서, 그리고 한정 명사구 ‘the N’은 꼭 집어확인 할 수 있는 인지상태를 충족시키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화살표는 위계 서열을 보여주는데 상위에서 하위로의 포함관계를 나타낸다.⁹⁾

[표 1] 알려진 상태의 서열

인지상태	인지상태	인지상태를 반영하는 표현
↓	초점을 받고 있는 상태	비강세 it
	활성화된 상태	that, this, this N
	친숙한 상태	he, she, that N
	꼭 집어확인 할 수 있는 상태	the N
	지시적인 상태	비한정적 지시 this N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a(n) N

논의를 우리의 관심 대상인 지시관형사에 국한하여 영어 출발텍스트에서 지시관형사 명사구 ‘this N’ 그리고 ‘that N’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지 정보적 필요충분조건을 각각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의 ‘this N’의 사용은 그 지시 대상체가 발화의 상황에서 화자의 맥락적 공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장기 기억 장치에서 축출하여 발화 상황에서 화자의 단기 기억 장치에 활성화되어야(activated) 한다. 그러나 강세 인칭대명사나 일반대명사와 달리 화자 근

9) 더 구체적인 논의는 건넬과 헤드버그와 자카르스키(1993)을 참조하기 바람. 이 논문에서 사용된 각 지시표현의 인지상태에 대한 우리말 용어는 이성범(2005)을 참조하였다.

칭 ‘this N’은 이 지시관형사 명사구에 의해 지칭되는 대상체가 화자에 의해서 담화 맥락에 도입되어야 하는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대화에서 화자 B의 ‘this dog’에 의해 지칭되는 개는 청자, 즉 A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17) A: Have you seen the neighbor's dog?
B: Yes, and ??this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반면 아래와 같이 해당 개가 화자에 의해 도입된 경우 적절하다.

- (18) My neighbor has a dog. This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한편, 청자근칭 ‘that N’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청자의 (장기 또는 단기) 기억 장치에 해당 지시 대상체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어야 하며 따라서 화자에 의해 언급되었을 경우 청자는 이 지시 대상체를 꼭 집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this’와 달리, ‘that’은 지시 대상체에 대한 화자 도입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위에서 언급된 (17)-(18)의 맥락에서도 모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 (19) A: Have you seen the neighbor's dog?
B: Yes, and that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20) My neighbor has a dog. That dog kept me awake last night.

아래의 맥락에서는 비록 ‘that dog’에 의해 지칭되는 개가 이전 발화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만일 청자가 이 해당 개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라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 (21) I couldn't sleep last night. That dog (next door) kept me awake.

이와 같이 청자근칭 지시관형사 ‘that’은 직접적인 담화 또는 비언어적 맥락에서 바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청자의 기억장치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 청자가 그

대상을 꼭 집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담화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논의를 지시명사구 체계로 돌아가면, 한국어 지시명사구 체계는 위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을 따를 때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¹⁰⁾ 영어와의 비교 편의를 우리의 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명사구 체계만을 제시하였다.

[표 2] 인지상태에 기초한 영어와 한국어의 지시표현

	활성화된 상태	친숙한 상태	꼭 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지시적인 상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영어표현	this N	that N	the N	indefinite this N	a(n) N
한국어표현	이 N	그 N	∅N		∅N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원형명사구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기능을 하는 ‘a(n) N’과 꼭 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기능을 하는 ‘the N’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영어의 ‘that N’과 한국어의 ‘그 N’은 공히 친숙한 상태의 담화 인지정보를 나타내며 영어의 ‘this N’과 한국어의 ‘이 N’은 지시 대상체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담화 인지정보가 활성화된 상태의 정보를 갖고 있다.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지시명사구 체계와 영어의 그것이 크게 다른 점은 원형명사구의 인지상태에 관한 것이다. 한정성과 관련하여 영어는 명사구의 한정성을 표시하는 정관사 ‘the’ 그리고 비한정성을 표시하는 부정관사 ‘a(n)’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한정성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어의 원형명사구는 한정적으로 그리고 비한정적으로도 사용이 된

10) 건넬, 헤드베르그, 그리고 자카르스키(1993)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영어 지시명사구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과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의 그것과 비교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정수 (1996:558)에서 언급된 한국어와 일본어 지시관형사의 유사함에 기초하여 필자가 한국어 지시관형사 ‘이’는 활성화된 상태 그리고 ‘그’는 친숙한 상태의 인지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원형명사구 ‘∅N’의 경우는 한국어 원형 명사구는 한정적 그리고 비한정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치하였다.

다. 즉, 한국어 원형명사구는 맥락에 따라 한정적, 비한정적 효과를 갖는다 (전영철 2002, 2004). 즉, 한국어 원형명사구는 영어 비한정 명사구 ‘a(n) N’의 기능과 한정명사구 ‘the N’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 (22) 조금 전까지 개가 놀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혹시 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23) 근처에 개 키우는 집 있어요? 지난밤에 개가 얼마나 짖던지 잠을 다 설쳤어요?

(22)의 밑줄 친 ‘개’는 원형명사구로서 이전에 발화된 ‘개’를 지칭하는 한정적 표현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23)의 밑줄 친 ‘개’는 지시체로 처음 등장한 비한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정성과 관련된 이러한 한국어와 영어 지시명사구 체계의 차이로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사이에 변환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이 예측된다. 실제로 이러한 예들은 쉽게 발견된다. 아래의 예문들이 보여주듯이 한국어 출발텍스트에서 ‘책’은 원형명사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문맥상 한정적 또는 비한정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한정 명사구 ‘the book’으로 또는 비한정 명사구 ‘books’로 변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4) ST: 어머니는 책 표지를 손으로 가리면서 얼른 나가라고 눈으로 재촉했다.
 TT: Blocking the cover of the book with her hand, she motioned with her eyes for me to hurry up and get out.
 (25) ST: 그러나 어머니가 알아 낸 것은 책 속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TT: In the end, though, she discovered that answers don't lie in books

끝으로 논의될 지시 명사구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의 특징은 그 관계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닌 포함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알려진 상태의 서열’에 배치된 각 지시명사구 표현은 함의 관계에 있다. [표1]에서 각 명사 표현 형태와 연관된 인지적 상태 사이의 관계를 말하자면, 상위의 것이 아래의 것을 함의

하고 있다.

초점을 받고 있는 인지상태는 위계서열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 인지상태는 아래쪽에 놓여있는 모든 인지상태를 함의하고 있다. 지시 관형사를 보자면 활성화된 상태의 정보를 갖은 ‘this N’은 아래쪽에 있는 친숙한 상태, 꼭 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지시적인 상태, 그리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모두를 함의한다. 어떤 표현이 활성화된 인지상태를 만족시키면 이 표현의 해당 지시 대상체의 정체는 확인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함의 관계 서열 아래에 위치한 꼭 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지시명사구 ‘the N’은 서열의 상위에 위치한 ‘this N’을 대치할 수 있다. 건넬 등은 아래의 예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26) These incredibly small magnetic bubbles are the vanguard of a new generation of ultradense memory-storage systems.

- These systems
- Those systems
- The systems
- New generation ultradense memory-storage systems are extremely rugged: they are resistant to radiation and are nonvolatile.

원래의 담화 텍스트에 사용된 지시명사구는 ‘these systems’이며 지시관형사 ‘these’는 서열에서 활성화된 상태의 인지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표현을 대치할 수 있는 표현들 ‘those systems’ ‘the systems’ 등은 활성화된 상태의 인지 위치보다 낮은 친숙한 상태, 꼭 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등의 인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시명사 표현과 결합된 인지 상태들의 관계는 함의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함의된 위치의 표현들은 자신을 함의하는 표현들을 대치할 수 있다.

이를 번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영어의 지시관형사 명사구 ‘this N’은 도착텍스트에서 이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명사구 ‘이 N’으로 변환될 수 있지만, 이 지시관형사 명사구 ‘이 N’의 함의관계에 놓인 청자근칭 지시관형사 ‘그 N,’ 또는 원형명사구로 변환될 수 있음이 예측된다. 실제로 이 예측이 타당함이 영한 번역텍스트, 즉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관찰된다. (27)은

형식적 대응관계로 발생한 경우이며 (28)는 ‘그’로 그리고 (29)는 원형 명사구로 변환된 경우이다.

(27) ST: This sentence I'm reading is terrific.

TT: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은 아주 삼백한데.

(28) ST: ... and then I put on this hat that I'd bought in New York that morning.

TT: ... 그날 아침 뉴욕에서 산 그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29) ST: He wrote me this note saying he wanted to see me before I went home.

TT: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깐 들르라고 쪽지를 보내셨거든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영어와 한국어 지시명사구 체계의 차이는 한정성과 관련하여 형식적 비대응 관계에 있음을 보았다. 즉, 영어는 명사구에 한정성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한정 명사구 ‘the N’과 비한정 명사구 ‘a N’가 있으나 한국어는 이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형명사구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지시관형사와 관련하여 영어와 한국어는 형식적 대응관계에 있음을 보았다. 특히 화자근칭 지시관형사의 인지상태는 활성화된 상태이며 청자근칭 지시관형사는 친숙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알려진 상태의 서열에 따르면 지시명사구 인지상태 사이는 함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의된 인지상태의 지시명사구 표현이 응집성 등 화용적 적절성 여하에 따라 상위 표현을 대치할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이로 인하여 번역텍스트에서 지시명사구의 변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다.

4. 지시관형사 변환 현상

영어 출발텍스트의 ‘this N’이 한국어 도착텍스트의 원형명사구 ‘∅ N’으로 혹은 ‘그 N’으로 전환되거나 한국어 출발텍스트의 ‘이 N’이 ‘the/a N’으로 변환되거나 ‘that N’ 또는 ‘it’과 같은 대명사로 변환되는 이른바 불일치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화자 그리고 청자근칭 지시관형사가 각각 청자 그리고 화

자근칭 지시관형사로 변환된 경우는 ‘관점 전환’이라고 칭할 것이다. 그리고 화/청자근칭 지시관형사가 다른 지시명사구의 문법적 형태로 변환된 경우는 ‘근접성 상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변환들은 앞서 언급한 지시명사구 체계의 차이에 근거하며 변환 가능한 표현들 가운데 선택된 표현은 번역가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직시 관점이 전환되거나 상실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에서 발생한 지시관형사들이 도착텍스트에서 나타난 유형과 그 빈도수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병렬말뭉치에 나타난 지시관형사와 변환 빈도

번역유형	지시관형사 ¹¹⁾	근접성 유지	관점전환	근접성 상실
영->한	this(281)	이(22)	그(16)	∅ N 등(243)
	that(127)	그(81)	이(0)	∅ N 등(46)
합계	408	103(25%)	16(4%)	289(71%)
한->영	이(139)	this(44)	그(2)	the 등(93)
	그(340)	that(57)	이(6)	he 등(277)
합계	479	101(21%)	8(2%)	370(77%)

먼저 영한 그리고 한영번역에 나타난 공통적인 지시관형사 변환의 특성은 근접성의 유지보다는 근접성 상실과 관점 전환을 포함한 변환현상이 전체의 75%에서 79%로 형식의 변환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변환 현상 중에서도 관점

11) 바이버 등(Biber et al. 1999:275)에 따르면, 100만 단어를 기준으로 소설에서 지시관형사 ‘this’가 ‘that’보다 발생빈도수가 높다. ‘this’는 약 2000단어 발생하며 ‘that’은 약 1500단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지시관형사 ‘this’가 ‘that’보다 두 배 이상 발생한 것은 4.1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소설 *The Catcher in the Rye*에서 주인공 홀든의 서술방식의 특징으로 비한정 지시 ‘this’가 많이 쓰이고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어 출발텍스트에서는 ‘그’가 ‘이’보다 약 두 배 가량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박병선(2004)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550만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그’가 약 46,000회 그리고 ‘이’는 약 31,000회 출현하여 ‘그’가 약 50% 더 발생하였다. 비록 출현비율에서는 그 비율이 다르지만, 우리의 연구대상 텍스트에서 ‘그’와 ‘이’의 출현비율이 일반적인 출현비율을 역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환보다는 근접성 기능이 도착텍스트에서 상실되는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도착텍스트보다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근접성 상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의 응집성에서 영어의 경우 한국어보다 단어문법결속이 동일어휘반복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곽성희 2002).

우리는 아래의 4.1에서 영한 번역에 나타난 근접성의 변환을 보고 4.2에서는 한영 번역에 나타난 근접성 변환현상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현상들은 담화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될 것이다.

4.1 영한 번역에 나타난 근접성 변환

지시관형사 ‘this’가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이’로 번역되거나 ‘그’로 변환된 경우 그리고 근접성이 상실되어 변환된 경우들의 분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영어 지시관형사 ‘this’와 변환

출발텍스트	도착텍스트			
	근접성 유지	관점 전환	근접성 상실	
this	‘이’	‘그’	∅ N	기타
281	22(8%)	16(6%)	226(80%)	17(6%)

영어 지시관형사 ‘this’가 한국어 도착텍스트에 번역된 현상을 비율로 보면 원전에서 발생한 지시관형사 ‘this’의 86%가 화자 근접성의 화용정보를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출발텍스트 저자가 독자들에게 투사한(project) 화자 근접성이 번역텍스트에서는 상실되었음을 말한다.

『호밀밭의 파수꾼』 원전의 문체적 특성은 주인공 홀든이 자신의 경험을 구어체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독자들을 자신의 청자로 삼아 직접 이야기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홀든은 “You’d have liked Allie.”라고 독자를 향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청자근칭 ‘that’과 관계된 논의에서 보겠지만, 출발텍스트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타난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this’의 출현 회수는 281회로 청자근칭 지시관형사 ‘that’(127회)보다 2배 이상

발생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홀든이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지시하는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예를 들어, 술집 어니에서 홀든은 웨이터에게 술집 주인인 어니에게 자기와 술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말을 전해달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Those bastards never give your message to anybody." 그리고는 곧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All of sudden, this girl came up to me and said, "Holden Caulfield!" Her name was Lillian Simmons.

이 상황에서 지시되는 'this girl'은 이 문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로 비한정적 이어서 'a girl'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 홀든은 지시적 지시관형사 'this'를 사용하여 물리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이 지시대상자 릴리언에 대한 초점을 이 상황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시 대상에 대한 초점을 높이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지시적 'this'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원전의 특징이다.¹²⁾ 이러한 새로 소개되는 지시 대상에 대한 지시 관형사 'this'는 도착텍스트에서 한국어의 '어떤'의 형태를 가진 비한정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비한정적으로 해석되는 원형명사구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 준다.

(30) ST: All of sudden, this girl came up to me and said, "Holden Caulfield!"

TT: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내게 다가오더니 "아니 홀든 콜필드야 나"하고 아는 ...

(31) ST: ... I went into this little sandwich bar and had breakfast.

TT: ... 나는 조그만 샌드위치 집에 들어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12) 위와 같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지시할 때, 이러한 지시적 'this'가 사용되는 경우가 37회 관찰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ST: This teacher that taught biology, Mr. Zambesi, stuck his head out of this window...

한편, 화자근칭의 근접성이 유지된 경우는 지시 관형사 ‘this’ 전체 출현 수의 8%(22회)이며 청자근칭의 근접성으로 변환된 경우는 6%(16회)로 나타났다. 청자근칭으로 전환된 경우의 수는 전체 발생 회수에 비하면 그 빈도가 약하지만 화자근칭이 유지된 비율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번역 도착텍스트에 남겨진 번역가의 흔적이 뚜렷하다고 볼 때 번역가의 문체적 특성에 주목할 만하다. 이 근접성 변환의 경우는 4.1.1에서 논의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빈도수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출발텍스트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던 출발텍스트의 화자근칭 ‘this’의 화용적 의미는 도착텍스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청자근칭 지시관형사 ‘that’이 도착텍스트에 나타난 분포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영어 지시관형사 ‘that’과 변환

출발텍스트	도착텍스트			
	근접성 유지	관점 전환	근접성 상실	
that	그	이	∅ N	기타
127	81(64%)	0(0%)	42(33%)	4(3%)

화자근칭 지시관형사 ‘this’의 경우와 달리, 청자근칭 ‘that’의 경우는 근접성이 도착텍스트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지배적이다. 그리고 ‘this’의 경우와 달리 ‘that’의 경우는 도착텍스트에서 관점에 대한 전환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시관형사 ‘that’의 경우도 도착텍스트에서 36%에 해당하는 수가 원형명사구로 변환됨에 따라 ‘that’의 부호화된 청자근칭의 근접성 효과가 상실되고 있다.

4.1.1 관점 전환

『호밀밭의 파수꾼』의 영한 번역에 나타난 지시관형사의 근접성 전환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자근칭에서 청자근칭으로의 변환만 발생하였다. 화자근칭으로부터 청자근칭으로의 변환은 번역가가 도착텍스트의 독자들에게 출발텍스트에 나타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이야기의 관점을 이끌고

가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화자근칭에서 청자근칭으로의 관점 전환은 화자의 이야기를 객관화시키는 화용적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문법적 요소에 의한 변환이 아니라 번역가의 선택임을 볼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첫 번째 예는 주인공 홀튼이 자기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대목이다.

(32) ST: Besides, I'm not going to tell you my whole goddam autobiography or anything. I'll just tell you about this madman stuff that happened to me around last Christmas just before I got pretty run-down and had to come out here and take it easy.

TT: 게다가 나는 지금 빌어먹을 자서전 나부랭이니 뭐니 그런 것을 쓰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이곳에 와 요양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그 미치광이 짓거리를 털어놓으려는 겁니다.

영어 출발텍스트에 쓰인 ‘this’는 홀튼이 앞으로 이야기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후방 지시(cataphora)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³⁾ 그리고 이 지시관형사 명사구 ‘this madman stuff’는 담화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담화 인지적으로 청자에게 비한정적 지시 정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때 쓰인 ‘this’는 화자만이 알고 있는 사건(들)로 화자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화자근칭 ‘this’는 도착텍스트에서 ‘그 (미치광이 짓거리)’로 관점 전환되고 있다. 홀튼이 이야기하려는 이 이야기는 이곳에 오기 직전인 지난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도착텍스트에서는 이 미치광이 짓거리가 발생한 시점을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며 이곳에 오기 전의 시점을 독자와 공유된 직시 공간(deictic field)에 투사하고 있다. 따라서 도착텍스트의 독자와 공유된 이 직시공간과 홀튼이 이야기하려는 미치광이 짓거리는 같은 과거 시간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독자와 공유된 직시 공간의 연장에 있

13) 영어에서 ‘that’은 전방 지시(anaphora) 기능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대상을 언급하는 이 텍스트 위치에서 사용될 수 없다.

게 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this madman stuff”를 도착텍스트에서는 청자근칭의 “그 미치광이 짓거리”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착텍스트의 담화에서는 비록 처음 언급되지만, 독자와 공유된 것으로 투사된 직시 공간 안에서 해당 지시대상체가 화자근칭에서 청자근칭으로 재생산되어 근접성 변환이 발생하는 예는 아래의 예에서도 관찰된다.

(33) ST: I felt sort of cosy. I took off my coat and my tie and unbuttoned my shirt collar: and then I put on this hat that I'd bought in New York that morning. It was this red hunting hat, with one of those very, very peaks.

TT: 말하자면 아늑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투와 넥타이를 벗고 셔츠 단추를 풀고 나서 그날 아침 뉴욕에서 산 그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매우 긴 챙이 달린 빨간 사냥 모자 말입니다.

출발텍스트에서 (빨간) 모자를 산 시점은 청자 근칭 “that morning”으로 언급되며 도착텍스트에서도 “그 날 아침”으로 마치 홀든과 독자가 서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공간으로 투사된다. 출발텍스트에서는 “this hat”으로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소유된 모자로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착텍스트에서 번역가는 홀든이 산 이 모자가 “그 날 아침”이라는 특정 시, 공간에서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공유된 직시 공간 내에서 해당 모자를 언급할 때 관점을 전환하여 “그 모자”로 화자와 독자의 인지 속에 공유된 이미 친숙한 대상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모자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도착텍스트에서 사용된 “매우 긴 챙이 달린 빨간 사냥 모자 말입니다”에서 종결어 “말입니다”는 청자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으로 마치 홀든이 (도착텍스트의) 독자로 부터 이 모자에 대해 기억을 재생시키는 어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번역가가 원저자가 출발텍스트에서 ‘this hat’을 독자에게 화자근칭으로 존재하는 것을 도착텍스트에서는 화자와 청자, 즉 독자가 공유하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재생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설 속의 화자와 독자 사이의 투사된 공동의 직시 공간에 의한

근접성 변환을 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투사된 직시 공간의 도입 없이 번역가의 선호와 선택에 의해 화자근칭에서 청자근칭으로 전환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예를 보면 출발 텍스트의 ‘this girl’이 도착텍스트에서 ‘그 여자’로 변환된 것을 보여준다.

(34) ST: Only she's not doing so hot, because her brother's a drunkard and he spend all their dough. Anyway, old Alec writes a book, and this girl publishes it, and they both make a hatful of dough on it. They're all set to get married when this other girl, old Marcia, shows up.

TT: 주정뱅이 오빠가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 여자의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지요. 어쨌든 알렉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여자가 그것을 출판해서 두 사람은 때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결혼하려고 할 찰나에 갑자기 마셔라는 다른 여자가 나타납니다.

출발텍스트의 ‘this girl’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체의 인지적 상태는 앞에서 논의한 예들과 달리 문맥 속에서 이전에 언급된 여자로 화자와 독자의 기억에 친숙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위의 인용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she’와 ‘this girl’의 지시체는 동지시 관계의 동일인이다. 출발텍스트의 저자가 이 맥락에서 이 여자를 ‘this girl’로 언급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이입 효과나 이 여자에 대한 인지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출발텍스트의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도착 텍스트에서 ‘이 여자(가)’의 표현도 가능한 맥락에서 번역가는 ‘이’ 대신 ‘그’를 선택하고 있다. 번역가는 ‘그’를 선택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여자에 대해 심리적 이격 또는 중립을 갖게 하는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Toolan 1990:183).¹⁴⁾

이러한 근접성 전환의 현상을 ‘알려진 상태의 서열’의 함의관계에서 보기로

14) 이와 같은 청자근칭의 효과는 영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툴란 (Toolan 1990)을 참고하기 바람. 증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어에서 지시관형사 ‘이’보다 ‘그’가 담화적으로 무표적 형태라면 무표성에 의한 표준화가 이러한 ‘이’에서 ‘그’로의 변환 현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자. 바로 위에서 논의한 ‘this girl’이 ‘그 여자’로 변환된 경우를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활성화된 상태에서 친숙한 상태로 전환된 경우이다. 도착텍스트의 맥락에서도 이 여자는 화자와 청자의 단기 기억 속에 심적 표상을 갖고 있는 대상이며 현재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도착텍스트에서도 ‘이 여자’와 ‘그 여자’ 두 표현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지시표현의 인지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 다시 인용된 ‘this hat’의 경우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의 담화 맥락에서 처음 언급된 대상이다.

(35) ST: I felt sort of cosy. I took off my coat and my tie and unbuttoned my shirt collar: and then I put on this hat that I'd bought in New York that morning. It was this red hunting hat, with one of those very, very peaks.

TT: 말하자면 아늑한 기분이 들었어요. 외투와 넥타이를 벗고 셔츠 단추를 풀고 나서 그날 아침 뉴욕에서 산 그 모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매우 긴 챙이 달려 빨간 사냥 모자 말입니다.

영어 출발텍스트에서 저자는 비록 화자근칭이지만 영어의 체계에서 청자에게 새로운 지시 대상을 소개할 때, 지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구어 표현인 지시적 ‘this’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맥락에서 ‘this hat’은 담화 인지적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어 지시 표현 체계에는 이에 일대일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 명사구는 원형명사구임을 보았다. 그러나 도착텍스트에서는 청자의 기억에 친숙한 인지 상태에 위치해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시 표현 ‘그 모자’가 사용되고 있다.

도착텍스트의 맥락에서 ‘그 모자’의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보기로 하자. 먼저 ‘그날 아침 (뉴욕에서 산)’이라는 청자근칭의 직시 표현에 의해 투사된 직시 공간이 화자(홀든)과 독자 사이에 형성된다. 따라서 독자들의 기억 장치 속에 홀든과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건이 위치한다. 즉 독자들의 단기 기억 속에는 홀든이 시간적으로 과거 어떤 특정한 날, 뉴욕에서 무엇을 산 경험을 자신들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기억 장치 속에 형성되어 이 기억 장

치를 매개로 ‘그 모자’가 언급될 때, 비록 이 모자가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어도 독자들은 이 투사된 자신의 인지 공간에 이 대상을 수용(accommodation)하며 심적 표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 모자’는 화자와 청자의 기억 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청자근칭 ‘그’가 갖고 있는 상념 지시 기능이 쓰일 수 있는 맥락이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관점 전환에 의한 청자근칭 ‘그’가 적절한 것이다.

4.1.2 근접성 상실

이 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지시관형사 명사구가 원형명사구 ‘∅ N’의 형식으로 변환된 경우이다. 변환된 원형명사구는 어떤 담화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친숙성의 인지적 조건을 가진 지시관형사 명사구 ‘that N’ 그리고 활성화의 인지적 조건을 가진 지시관형사 명사구 ‘this N’가 원형명사구로 변환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이 질문을 ‘알려진 상태의 서열’에 의한 함의관계의 측면에서 답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지시명사구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에서 지시관형사 명사구 ‘그 N’은 친숙함의 인지 상태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 하위에 위치한 원형명사구 ‘∅ N’의 인지 상태를 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계 서열에 따르면, 함의되는 원형명사구는 함의하는 지시관형사 명사구를 대치할 수 있음이 예견된다. 따라서 영한 번역에서 영어텍스트의 지시관형사 명사구 ‘this N’이 한국어 텍스트에서 원형명사구로 변환되는 것은 위의 ‘알려진 상태의 서열’의 함의관계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영어 지시관형사 명사구가 도착텍스트에서 한국어 원형명사구로 변환된 경우의 예로 아래 ST의 ‘auditorium’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6) ST: I get very happy when I think about it. Even now, I remember after we looked at all the Indian stuff, usually we went to see some movie in this big auditorium. Columbus. They were always showing Columbus discovering America, ... but you always had a lot of candy and gum and stuff with you, and the inside of that auditorium had such a nice smell.

위의 텍스트에서 지시관형사 명사구 ‘that auditorium’은 화자와 청자의 인지 상태에 친숙한 대상체이다. 이전 발화에서 그 지시체가 소개되었다. 즉 “we went to see some movie in this big auditorium”에서 담화에 이미 도입되어 있었다. ‘this big auditorium’에서 사용된 ‘this’는 지시적 지시관형사로 새로 도입되는 지시체 즉, 강당을 소개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높고 꼭 집어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인지적으로 낮은 정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화자 홀든은 이 강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독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이 지시체가 언급될 때 강당은 이미 청자와 화자의 기억에는 친숙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청자 설정의 주어 ‘you’가 도입되어 청자근칭의 지시관형사 ‘that’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어 출발텍스트 내의 지시 표현 ‘auditorium’이 도착 텍스트에서 어떤 명사구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출발텍스트의 명사 표현 ‘auditorium’은 두 번 사용이 되며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 지시체를 나타내는 표현 ‘강당’은 아래의 예가 보여주듯이 세 번 발생하고 있다.

- (37) TT: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고요. 온갖 인디언 물건을 돌아보고 난 뒤에는 으레 큰 강당에서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콜럼버스였어요. 그 강당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애들이 과자며 껌이며 뭐 그런 것을 잔뜩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강당 안에서는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강당이 처음 도입이 된 경우에는 원형명사구 ‘강당’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 표현은 비한정적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 두 번째 사용된 ‘그 강당’은 바로 이전 발화에서 도입된 대상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인지 상태에 친숙한 대상체로 존재한다. 이 때 지시되는 대상체는 친숙함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지시관형사 명사구 ‘그 강당’으로 표현되고 있다. 콜럼버스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다시 강당에 관한 언급이 개시되는 상황에서 사용된 원형명사구는 한정적 지시 표현으로 화자와 청자사이에 이미 친숙한 상태의 인지 정보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의 영한 번역이 함께 인용된 것과 같이 ‘that auditorium’이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원형

명사구 ‘강당’으로 번역되며 청자근칭의 화용적 정보가 상실된 것이다.

(38) ST: and the inside of that auditorium had such a nice smell.

TT: 강당 안에서는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청자근칭의 정보는 도착텍스트에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정보는 잉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당’이 어느 강당을 언급하는지 그리고 그 강당은 청자근칭으로 언급되는 대상으로 앞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상태의 위계서열은 친숙한 상태로 존재하는 강당을 함의관계에 있는 원형명사구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꼭 짚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한정적 정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형명사구 ‘강당’은 해당 담화 맥락에서 친숙한 상태의 정보를 대치하여 적절한 지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자근칭의 ‘that’이 도착텍스트에서 원형명사구로 변환되어 근접성 효과가 상실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경우를 보면 ‘that house’는 원형명사구 ‘집’으로 변환되어 있다. 이 경우 출발텍스트를 보면 ‘that house’의 지시대상체는 이전 담화에서 ‘old Spencer’s house’로 언급되었다.

(39) ST: Boy, I rang that door bell fast when I got to old Spencer's house. I was really frozen. ... "C'mon c'mon." I said right out loud, almost, "somebody open the door." Finally old Mrs. Spencer opened it. ... Boy, did I get in that house fast.

TT: 스펜서 선생 집에 닿기가 무섭게 나는 초인종을 마구 눌러 댔습니다. 정말 몸이 땀 뻘뻘 얼어붙었거든요. ... “자아 정말 어서요.” 하고 나는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더니깐요. “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마침내 사모님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 정말이지 나는 찻싸게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의 텍스트를 보면, 스펜서 선생 집은 담화 초기에 언급되었고 따라서 청자의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홀튼은 이 집을 다시 언급할 때 자기와의 밀접한 개입을 원거리화하기 위해 청자근칭의 ‘that’을 사용하여 스펜서 선생의 집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에서도 위의 맥락에서 청자근칭의 ‘그 집(안으

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 원형명사구가 꼭 집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한정적 지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착텍스트에서와 같이 원형명사구가 사용되어도 누구의 집이 지시되는지 독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 번역가는 출발텍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고 ‘that house’를 한국어에서 무표적 형태인 원형명사구로 옮기고 있다. 이러한 번역가의 선택은 도착텍스트의 독자들에게 홀든이 스펜서 선생의 집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중화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출발텍스트의 지시관형사의 직시표현이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관점 전환되거나 근접성이 상실되는 예를 보았다.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 관점 전환이 화자에서 청자로 전환된 경우는 물론이고 원형명사구로 변환되어 발생한 경우도 이러한 변환은 번역가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보았다. 즉 번역가가 출발텍스트의 근접성 직시 표현을 생략시키고 도착텍스트에서 원형명사구를 사용한 것은 문법적으로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번역가의 문체적 선택으로 도착텍스트의 독자들에게 출발텍스트의 저자가 전달한 직시적 효과와는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의 4.2에서는 한국어 출발텍스트 『모순』에서 사용된 지시관형사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볼 것이다.

4.2 한영 번역에 나타난 근접성 변환

소설 『모순』에서 한국어 지시관형사 ‘이’와 ‘그’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다른 지시관형사로 관점 전환되거나 또는 다른 문법적 형태로 변환되어 근접성이 상실된 경우들의 분포현상을 보도록 하겠다. 먼저 화자근칭 지시 관형사 ‘이’가 영어 도착 텍스트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변환된 분포현상은 아래와 같다.

[표 6] 지시관형사 ‘이’와 변환

출발 텍스트	도착 텍스트		
	근접성 유지	관점 전환	근접성 상실
‘이’	this	that	the/ a/ 대명사 등
139	44(32%)	2(1%)	93(67%)

소설 『모순』에서 발생한 한국어 지시관형사 ‘이’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실현된 유형 가운데 약 32%에 해당되는 수가 화자근칭의 근접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약 67%는 근접성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록 영어의 청자 근칭 지시관형사 ‘that’으로 변환된 비율을 전체의 1%로 영한번역의 그것 - 약 6% -과 비교하면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지만 번역가의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될 것이다. 한편 근접성 상실의 예들이 문법적 결과인지 아니면 번역가의 문체적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는 분석의 대상인데 이는 4.2.2에서 번역가의 문체적 선택으로 논의될 것이다.

한편 출발텍스트의 청자근칭 지시관형사 ‘그’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실현된 분포현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7) 지시관형사 ‘그’와 변환

출발텍스트	도착텍스트		
	근접성 유지	관점 전환	근접성 상실
지시관형사	that	this	the/ a/ 대명사 등
340	57(17%)	6(2%)	277(81%)

지시관형사 ‘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경우도 관점 전환이 발생한 빈도수는 낮다. 그리고 지시 관형사 ‘이’의 경우와 같이 ‘그’의 경우도 근접성 상실을 가져온 변환형태가 81%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근접성 유지의 경우를 보면, 청자 근칭의 경우보다 화자근칭의 경우가 두 배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소설 『모순』이 일인칭 소설로 화자 중심의 사건 기술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4.2.1 관점 전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소설 『모순』이 영어로 번역된 도착텍스트에서 근칭 변환을 보인 빈도수는 극히 적지만 몇 가지 관점 전환의 예를 보기로 하자. 먼저 화자근칭 ‘이’가 청자근칭 ‘that’으로 변환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 (40) ST: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 들어 하던 나이는 이미 지났다. 내 주머니 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약소한 월급으로도 얼마든지

이 식탁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니까.

TT: I've gotten too old to be intimidated by stuff like that. Besides, I still had plenty left over from my meager salary to pay for that dinner. I just didn't want to.

주인공 안진진은 이모부 부부가 초대한 프랑스 레스토랑이 주는 분위기며 요리에 주눅이 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거의 느낌을 회상하며 시간적 거리감을 ‘그런 것들’로 표현하며 현재 기준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분리감(detachment)을 표현한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받는 월급으로도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갖는다. 이 때 “이 식탁을 책임질 수”있다고 비용에 대한 자기 통제를 나타내기 위해 화자근칭 ‘이(식탁)’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원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내면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음식 등 음식점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근거리성이 표현된 ‘stuff like that’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불만족, 상황에 대한 거리감 등을 ‘that dinner’로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번역가는 이 상황에서 ‘이 식탁’에 나타난 화자 또는 청자의 근접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정관사를 수반한 ‘the dinner’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출발텍스트에 나타난 저자의 시점을 반영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청자근칭의 ‘that’을 선택함으로써 그 날의 식사에 대한 내레이터의 심리적 거리감과 분리감을 드러내고 있다¹⁵⁾

이번에는 청자근칭의 ‘그’가 화자근칭의 ‘this’로 관점 변환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출발텍스트의 ‘그 천하무적의 무기’는 도착텍스트에서 ‘this weapon’으로 관점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41) ST: 나처럼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여자에게도 결혼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십대의 젊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이니까. 벌써 결혼을 한 여학교 동창들

15) 톨란(1990:183)은 이러한 청자근칭 ‘that’의 기능에 대해 “narratorial distance and detachment from the facts and events reported”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바로 그 천하무적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익히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K, ...

TT: Even a girl like me, who doesn't have anything to be especially proud of, has her share of men who are interested. When you've gotten the youth of your twenties, you have an invincible weapon. High school classmates of mine who have already gotten married can offer expert testimony about how to wield this weapon. I'm not going to name names, but take K, for example.

결혼 적령기에 있는 스물다섯의 주인공 내레이터 안진진은 인생에 대해 무덤덤해온 자신을 탓하면서도 아직 이십대의 젊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이 이십대의 젊음은 자기보다 못한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그럴듯한 남자들과 결혼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맥락이다. 위의 출발텍스트에서 사용된 ‘그 천하무적의 무기’는 담화 앞에서 언급된 ‘천하무적의 무기’를 지시하는 전방 지시의 담화 직시어로 기능한다. 독자와 내레이터 사이의 심적 표상에 이미 공유되어 있는 ‘천하무적의 무기’는 출발텍스트에서 친숙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레이터는 청자근칭 ‘그’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여학교 동창들이 사용한 무기로 보며 자신과는 아직 무관한 심리적 이격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도착텍스트인 영어텍스트에서는 화자근칭의 ‘this weapon’으로 표현되고 있다. 영어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전방지시 ‘that’이 무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또는 근접성을 상실시키는 ‘the’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가는 전방 지시와 후방 지시로 모두 기능하는 화자근칭 ‘this’를 사용하고 있다. 이 ‘this weapon’은 바로 앞 절에서 언급된 ‘an invincible weapon’과 공지시 관계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내레이터와 독자들 사이의 심적 표상에 활성화된 대상으로 존재한다. 이 때 화자근칭의 ‘this weapon’은 젊음을 무기로 결혼한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사용된 것이지만 ‘this’의 사용은 젊음이 무기로 사용된 이러한 사건에 대한 내레이터의 주관적(subjectivity) 판단이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화자근칭의 ‘this’는 지시 대상체 무기에 대한 화자의 심

리적 근접성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지시관형사와 관계된 지시표현의 관점 전환을 인지상태의 관점에서 기술하면, 한국어 출발텍스트에서 ‘그 천하무적의 무기’에서 청자근칭 지시관형사 ‘그’는 앞에서 언급된 ‘천하무적의 무기’와 조응관계를 나타내는 전방 지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천하무적의 무기는 청자의 기억에 이미 친숙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숙성을 만족시키는 지시관형사 ‘그’의 선택은 이 지시표현에 관한 응집성을 적절하게 유지시키고 있다. 한편,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도 이 천하무적의 무기가 ‘an invincible weapon’으로 지칭되어 독자의 기억 속에 친숙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도착텍스트에서도 전방 지시표현인 ‘that’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어 텍스트와 같이 이 지시 대상에 대한 청자의 친숙한 상태를 만족시키는 표현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이 적절히 유지된다. 그러나 번역가는 지시관형사 ‘this’를 선택함으로써 이 지시대상에 대한 청자의 관심을 친숙한 단계에서 활성화된 단계로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시대상에 대한 독자의 관심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주의를 더 집중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출발텍스트의 지시관형사 ‘이’ 또는 ‘그’로 인한 근접성 효과가 도착텍스트에서 상실된 예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4.2.2 근접성 상실

우리는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근접성이 상실된 경우의 예를 한국어 출발텍스트의 지시관형사 명사구가 꼭 집어확인 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정관사 한정명사구 ‘the N’으로 변환된 경우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부정관사 비한정 명사구 ‘a(n)N’으로 변환된 경우를 보기로 하겠다. 먼저 한국어 청자근칭 ‘그’가 도착텍스트에서 영어 ‘the N’으로 변환되어 근접성이 상실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예는 출발텍스트의 ‘그 결혼’이 도착텍스트에서 ‘the marriage’로 변환된 경우를 보여준다.

- (42) ST: 만약 그랬다면 과히 예민하지 않은 어머니는 아주 쉽게 그 결혼을 포기할 수 있었을 터였다. 그 때는 나라는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더욱 쉽게.

TT: If he had, my mother, who is not overtly stupid, could have broken off the marriage easily, all the more so because I had yet to come into being.

출발텍스트의 “그 결혼”은 내레이터와 독자 사이의 기억에 친숙하게 저장되어 있는 내레이터 안진진 부모의 불행한 결혼을 회상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청자근칭의 ‘그 결혼’은 안진진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불행이 예고된 결혼을 독자들이 회상하게 하는 상념 지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착텍스트의 정관사 명사구 ‘the marriage’는 청자근칭이 수행할 수 있는 청자와 내레이터의 공감(empathy)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정관사 ‘the’의 사용은 누구의 결혼을 지시하는지 꼭 짚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화자와 청자의 심적 표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나 청자중심의 직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¹⁶⁾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도 ‘that marriage’의 사용은 가능하다. 안진진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결혼에 대한 언급은 ‘그 결혼’ 이전에 세 번 발생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독자들의 심적 표상에 이 결혼은 친숙한 상태

16) 이러한 청자근칭 ‘그’가 꼭 짚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the’로 직시기능이 상실되어 변환된 경우는 전체 390회 출현한 가운데 47회 발생하고 있다. 위에 인용된 직시기능의 상실은 아래의 예에서도 관찰된다.

ST: 말 안 듣는 자식들을 향해 내지르는 거친 엄마들의 악다구니 하나 없
이 고요한 그 길의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TT: Not a single mother was screeching at misbehaving children.
Someone stood at the end of the street.

17) 예를 들어, 아래에 인용된 출발텍스트의 한 부분은 결혼에 대한 정보가 담화와 청자구정보로 존재하여 청자에게 친숙한 상태의 정보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T: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의 술은 결혼 직후부터 재앙을 예고하는
숨은 불씨였다고 한다. 아버지의 끔찍한 술주정을 본 것이 결혼
후 처음 맞는 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고 하니 ...

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텍스트에서 ‘that marriage’로 그대로 유지되어도 텍스트의 응집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가는 친숙한 상태를 대치할 수 있는 꼭 집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인지 정보를 가진 ‘the’로 ‘that’을 대치함으로써 출발텍스트가 가진 청자근칭의 직시적 기능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끝으로 근접성이 상실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청자근칭 ‘그’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관사 ‘a(n)’ 명사구로 변환된 경우는 총 4회로 전체(340)의 1% 밖에 되지 않는 경우였다. 화자근칭의 경우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변환된 경우는 5회로 전체(139)의 2%가 채 되지 못하는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다. 출발텍스트의 지시관형사명사구가 어떻게 번역과정에서 그 근접성을 상실하였는지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한국어 출발텍스트에는 ‘그 편지’가 도착텍스트에는 ‘a letter’로 변환되어 있다.

(43) ST: 한 가닥 불길한 스침조차 감지할 수 없었던 오후 세 시의 나른한 시간을 뚫고 그 편지는 내게로 날아왔다. 마치 날벼락처럼.

TT: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an hour when disaster was not even a blip on my radar screen. And then a bolt from the blue. A letter that flew in and cut through that languid hour.

안진진은 이모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한국어 출발텍스트에서 동 지시체인 이모의 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동일한 단락의 15절 이전 텍스트에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다.

(44) ST: 그날 내가 받은 이모의 편지는 그렇게 끝나있었다.

TT: So ended the letter I received from my aunt.

누구의 편지인지 꼭 집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심적 표상의 상태에 있는 이모의 편지가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비한정적 표현으로 변환된 것은 번역과정에서 번역가가 생성한 텍스트성을 보아야 한다. 영어 도

착텍스트를 보면 이모의 편지가 준 당시의 전율을 언급한 “My hands shake, and my tears blur my vision”라고 언급한 다음 이 편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마치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하듯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45) TT: My hands shake, and my tears blur my vision. Exactly ten days after I returned to my work. From my month's leave of absence, a small package appeared on my desk at three in the afternoon when I got back from the president's office. "Miss An express package for you," someone said.

한국어 출발텍스트에서 주인공은 빠른우편 소포가 자신에게 배달된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마치 새로운 사건을 기술하듯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위의 도착텍스트에서 보듯이 “... a small package appeared on my desk ...”라고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가는 소포 속에 발견된 편지를 마치 처음 보듯이 비한정적 정보를 가진 대상체로 “A letter that flew in”으로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도착텍스트의 독자들은 ‘a letter’가 이모로부터 온 앞에서 언급된 이모의 편지인지를 알고 있는 맥락이다. 독자들의 기억에 익숙한 정보로 존재하고 있는 이모의 편지가 한국어 출발텍스트에서는 청자근칭의 상념지시 기능을 하는 ‘그 편지’로 투사되고 있지만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는 번역가가 이러한 이모의 편지를 비한정적 지시기능을 가진 단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된 ‘a letter’로 기술함으로써 청자의 직시적 근접성 기능을 상실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시적 근접성이 상실된 또 다른 예들은 ‘이’ 또는 ‘그’의 직시적 표현을 수반한 명사구가 대명사로 변환된 경우이다.

(46) ST: 심연으로 가라앉은 내 마음이 나에게 일렀다. 이 낚자를 놀리지 말라고.

TT: My thoughts, settling into a deep abyss, urged me not to tease him.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남자’는 안진진의 남자친구 김장우이다. 김장우는 지프 차 안에 함께 앉아 안진진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다가서려는데 안진진은 그에게 긴장하면서 그 순간 자신에게 스쳐가는 생각을 기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한국어 출발텍스트에는 위의 해당 텍스트가 발생하기 두 번째 절 앞에 김장우를 대명사 ‘그’로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47) ST: 그가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영악한 나는 다 알고 있었다.

TT: I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next and what he is going to say.

위의 담화맥락 (47)에서 김장우는 독자와 주인공 화자에게 친숙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 때 김장우는 인지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여 주인공 안진진의 내면 공간에 근접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화자근칭의 ‘이 남자’는 이러한 화자의 심리적 주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 도착텍스트에서 번역가는 이러한 안진진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 절에서 친숙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김장우에 대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대명사 ‘him’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가의 인칭대명사 ‘him’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국어 출발텍스트에 생성된 김장우에 대한 화자근칭의 직시적 화용기능이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는 상실되고 있다.

컨텍 등의 주어진 상태의 서열의 함의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aunt’s letter’가 담화 속에서 ‘a letter’로 표현되거나 친숙한 상태에 있는 김장우를 지속적으로 대명사 ‘he’ 또는 ‘him’으로 지칭하는 것은 가능하다. 텍스트의 해당 지시표현에 대한 지속성의 관점에서 텍스트성의 응집성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출발텍스트가 출발텍스트의 독자에게 전달한 직시표현의 근접성 효과는 이러한 번역가의 선택으로 인하여 도착텍스트에서 상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영한번역과 한영번역에 나타난 지시관형사들의 변환현상을 도착텍스트에 나타난 지시관형사 불일치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미국소설 *The Catcher in the Rye*와 한국소설 『모순』을 병렬말뭉치로 구축하여 해당 변환 현상을 용이하게 찾아 분석하였다. 직시어로 기능하는 지시관형사의 화용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변환 현상을 인지 화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넨 등의 지시명사구에 대한 인지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말뭉치 분석결과, 언어의 번역 방향에 관계없이 출발텍스트의 지시관형사가 도착텍스트에서는 약 75-79%가 변환 과정을 겪었으며 특히 근접성 상실이 지배적인 변환현상으로 나타났다. 관점 전환을 나타내는—예를 들어 영한번역에서 ‘this’는 ‘그’로, 한영번역에서 ‘이’는 ‘that’으로 변환되는—경우는 변환 전체의 약 2%에서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성 상실의 경우 한국어 도착텍스트에서는 지배적으로 원형명사구의 형태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도착텍스트에서는 정관사 지시명사구와 대명사가 지배적인 형태로 쓰였다. 지시관형사의 인지상태가 정관사 한정명사구나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원형명사구가 사용되는 것은 건넨 등이 제시한 지시명사구 사이의 함의관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영어에서는 정관사 한정명사구가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원형명사구가 지배적으로 사용된 것은 두 언어의 지시명사구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한번역에서 ‘this’는 ‘그’로, 한영번역에서 ‘이’는 ‘that’으로 변환되어 화자의 관점이 전환된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번역가가 해당 지시대상에 대한 화/청자의 공간적, 심리적 관점 전환을 번역과정에서 취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근접성 상실의 경우 비록 영어와 한국어의 명사구 체계의 차이가 언어 형태의 차이를 불러일으켰지만, 도착텍스트에서 근접성 상실이 근접성 유지보다 비율적으로 두 배 이상 발생하였다는 것은 번역과정에서 출발텍스트의 전이보다는 번역가의 문체적 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번역가 목소리의 흔적이 도착텍스트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번역학의 연구 초점이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번역의 충실성에서

번역물에 내재한 번역고유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창조적 생산자로서 번역가의 개입을 밝히는 번역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먼데이(Munday 2007)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번역가 개입에 대한 연구는 장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또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중재하는 차원의 번역가 개입이 주된 연구의 관심이지만, 언어 사용자의 시점(point of view)을 포함하는 화용적 언어표현에 대한 연구 또한 번역가 개입의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2. 「영한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양상」. 『번역학연구』 3(1): 125-144.
- 박병선. 2004. 「한국어 지시관형사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28: 61-78.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 출판원.
- 이성범. 2005. 『영어 지시표현의 이해: 인지 화용적 접근』. 서울: 부북스.
- 전영철. 2002.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언어와 정보』 6(2): 83-104.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45.
- Ariel, Mira. 1988. "Referring and accessibility." *Journal of Linguistics* 24: 67-87.
- Baker, Mona.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lum-Kulla, Shoshana.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Juliane House and S. Blum-Kulka (eds).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Discourse and Cognition in Transl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Tübingen: Gunter Narr. 17-35.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Gundel, J., N. Hedberg and R. Zacharski.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 274-307.
- _____. 2001. "Definite descriptions and cognitive status in English: Why accommodation is unnecessary."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5: 273-295.
- Johansson, S. 1998. "On the role of corpora in cross-linguistic research," in S. Johansson and S. Oksefjell (eds) *Corpora and cross-linguistic research*. Amsterdam: Rodopi, 3-24.
- Kenny, D. 2005. "Parallel corpora and translation studies: old questions, new perspectives?", in G. Bambrrok, P. Danielsson and M. Mahlberg (eds) *Meaningful texts*. Birmingham: Birmingham UP,
- Levinson, Stephen.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 Mason, Ian and Adriana Şerban. 2003. "Deixis as an interactive feature in literary translation from Romanian into English." *Target* 25(2): 269-294.
- Munday, Jeremy. 1998. "A computer-assisted approach to the analysis of translation shifts." *Meta* 43(4): 142-56.
- _____. ed. 2007. *Translation as intervention*. New York: Continuum.
- Olohan, Maeve. ed.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Oxford: Routledge.
- Toolan, Michael. 1990. *The Stylistics of fiction: A Literary-linguistic approach*. New York: Routledge.
- Toury, Gideon.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분석대상 텍스트

- ST: 양귀자. 2002. 『모순』. 서울: 살림.
- TT: Stephen Epstein and Kim Mi-Young. 2005. *Contradictions*. Ithaca: Cornell UP.
- ST: J.D. Salinger. 1951. *The Catcher in the Rye*. London: Penguin.
- TT: 김옥동 · 엄경숙. 1994. 『호밀밭의 파수꾼』. 서울: 현암사.

[Abstract]

**A Parallel corpus-based study of English and Korean demonstrative
determiners shifts in literary translation:
The Catcher in the Rye and *Contradictions* 『모순』**

Cho, Euiyon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how demonstrative determiners are shifted in the target texts of English-into-Korean and Korean-i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parallel corpus of the American novel *The Catcher in the Rye* and Korean novel 『모순』 (*Contradictions*) and their translations. Since demonstrative determiners such as ‘this’ and ‘that’ are grammatical words whose discourse functions include speaker’s point of view about the referent(s) being described, as done in previous studies such as Mason and Serban (2003) and Bosseaux (2007), this study will focus on translator’s discourse presence in the target texts. This study has adopted a cognitive pragmatic approach to explain the translation deictic shifts because the deictic shifts occurred are the results of the translator’s mental construal of the source text message. It will be shown that about 75 to 79% of all demonstrative determiners in the source texts have undergone shifts in the corresponding target texts. Most of them up to 90% appeared to have lost the narrator’s point of view about the speaker or hearer’s proximity to the referent being described. It indicates that as far as the demonstrative determiners are concerned, translators in these target texts have not been influenced from the source texts, but they have actively intervened in the translation processes since the shifts under discussion are not grammatically determined but selected by the translators.

▶ Key Words: shifts, demonstrative determiners, translator's voice, parallel corpus, cognitive status, proximity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화용론, 번역학, 말뭉치 언어학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